

수요가정에배순서

1. 신앙고백 사도신경 다같이

2. 찬 송 가 260장 다같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1.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2.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추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3. 나 지금 죄에서 사함 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4.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후렴】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3. 기 도 가족 중에서 기도자

4. 말 씀 요 2장 1~11절 인도자

5. 찬 송 가 288장 다같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1.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 온전히 주께 맡긴 내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 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3.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량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후렴】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하리로다

1. 신약통독 특별새벽기도회를 통해 삶 가운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도록
 2. 코로나 19의 안전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하루 속히 종식되도록
 3. 암과 질병으로 투병중인 교우들에게 완전한 치료와 회복을 주시도록
 4. 담임목사님 영육간의 강건주시고 항상 성령충만함 주시도록
6. 합심기도 예배와 일상이 회복되도록, 교회내 확진자가 한사람도 발생하지 않도록

7. 주기도문 다같이

가나 혼인잔치의 비밀(요2:1-11)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표적을 보여주신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갈릴리 가나에서 행해졌습니다.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은 예수님과 마리아, 제자들, 그리고 그 집 사람들과 마을 사람들이었습니다. 혼인잔치가 한참 무르익을 즈음에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혼인예식을 주관하는 신랑측 사람들은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찌할바를 몰라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19로 어찌할바 모르는 우리 모습과 같습니다.

어찌할바를 모르는 상황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나오는 등장인물들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혼인잔치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지를 압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포도주가 떨어진 줄을 알고 즉시 대처를 합니다. 마리아의 대처 방법은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5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마리아는 이미 4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줄 알았습니다.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며 구주이심을 알았습니다. 마리아는 세상의 부족함으로.. 문제로.. 혈떡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혼자 문제를 안고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연결시켜 줍니다.

우리 주위에도 온갖 문제로 고민하며 힘들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코로나 19 때문에 힘들어하며 사는 어려운 이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들에게 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어려움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향기를 보여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합니다.

둘째, 하인들입니다.

마리아는 문제를 안고 있는 하인들에게 예수님께로 나아가라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하인들은 예수님께로 나아갑니다.

7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8절 이제는 떠나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예수님께로 나온 하인들에게 예수님은 정결예식때 사용하는 물 항아리 여섯 개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에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 물을 채운 항아리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는 말씀에도 순종합니다.

여기에서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시사점이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많이 접합

니다. 예수님을 많이 접합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이 예수님을 대하고 순종이 없이 말씀을 대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여리고 사건, 요단강 도하 사건이나 하나같이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열렸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순종의 결핍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히 요구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께 역사하시고,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순종할 때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어 세상을 감동시키게 됩니다.

셋째, 예수님입니다.

원래 혼인잔치가 벌어지면 결혼식에 관한 모든 책임은 신랑이 감당합니다. 그런데 요2장에 나오는 신랑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그 어떤 일도 하지 못합니다. 뭔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문제 앞에서는 아무 힘도 발휘할 수 없는 신랑의 모습은 오늘 우리들의 자화상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에게 당부하신 것은 너는 나를(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한다. 그래야만 너의 삶이 행복한 인생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죄 된 인간은 자신이 마치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인간들에게 ‘내가 주인이다’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즉 예수님은 진짜 신랑이 예수님이시다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신랑으로 인정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할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으면 곱하기 0입니다.

당신의 인생에 하나님이 있으면 곱하기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모시고 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한대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